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26. 4. 15.(수) 16:00 ~ 19:20	회의장소	진선미관 진관홀																								
참석자 (13명)	강보아(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백주현(간호대학 공동대표), 서하연(경영대학 공동대표), 신동희(교무처장), 오민서(학부 부총학생회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운(총무처장), 장현수(대학원 학생회장), 정예진(학부 총학생회장), 최정아(학생처장)																										
불참자 (0명)																											
안건	1)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p>[안건 1]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2025결산</th> <th>2024결산</th> <th>결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10,986</td> <td>9,856</td> <td>1,130</td> </tr> <tr> <td>지출</td> <td>10,986</td> <td>9,856</td> <td>1,130</td> </tr> </tbody> </table> <p>[안건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2025결산</th> <th>2024결산</th> <th>결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4,532</td> <td>4,444</td> <td>88</td> </tr> <tr> <td>지출</td> <td>4,532</td> <td>4,444</td> <td>88</td> </tr> </tbody> </table>			구분	2025결산	2024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10,986	9,856	1,130	지출	10,986	9,856	1,130	구분	2025결산	2024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532	4,444	88	지출	4,532	4,444	88
구분	2025결산	2024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10,986	9,856	1,130																								
지출	10,986	9,856	1,130																								
구분	2025결산	2024결산	결산 대비 증감																								
수입	4,532	4,444	88																								
지출	4,532	4,444	88																								
내용	<p>■ 개회</p> <p style="padding-left: 40px;">-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다.</p> <p style="padding-left: 40px;">-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p>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예산팀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대학원 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 위원장이 본 안건 상정 전 의사 진행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2차 등심위가 원만히 종료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에 있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움을 말하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부연하다. 등심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며, 모든 위원들이 합의한다면 선례를 토대로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7, 8월 중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하다.

- 위원장이 상정된 두 의결 안건 외 부속병원회계 의결 진행 후 학생위원의 요청에 따라 예산 관련 학생 요구안을 논의하고 발언하는 시간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차 등심위 과정에서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파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2.95% 등록금 인상이 강행된 부분에 대해 항의하다. 등심위 이후 추가 개의 요구권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구조 등심위는 7월 개최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최와 동일하게 되었으며, 합의안은 검토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외부위원이 조퇴를 이야기한 후 곧바로 인상안이 결정되었으며,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만오천 이화인의 2026학년도 등록금 납부가 결정되는 자리에서 학생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결이 마무리되었음을 발언하다. 학생위원의 발언은 실질적 검토 없이 묵살되었고 구조적으로 다수를 정한 학교 측 위원들에 의해 인상안이 가결되었다고 주장하다.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2순위, 기금 적립 2순위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도 학생 요구안이 반영되었다고 하나 학생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발언하다. 등심위 추가 개최와 운영 개선안, 학생요구안 안건 상정을 요구하였으나 등심위 종료 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7월 구조 등심위 전에 한 차례 더 등심위를 개최하고 학생 복지 요구안 논의와 학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생 요구안 안건 상정을 요청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안건은 계속 가결되어 왔으나, 교직원위원은 이 문제의 구조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의결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졸속적인 결정은 이화를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할 수 없으며, 구조 개선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요구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생위원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추후 등심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구조 개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지만 2차 등심위 이후 학생위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학생 요구안 이행을 위한 학교 차원의 보장을 요구하며, 구조 등심위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다음 차기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것은 일정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건 의결 후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 공유를 제안하다. 학생 요구안과 예결산 관련된 부분은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2개 안건 사이에 발언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1, 2차 회의에서 요청했던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총학생회 안내와 학보 기사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공개되었고, 학교 홈페이지 등심위 회의록 게시로 안내되었음을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알림 서비스를 통한 공지 가능성을 질의하고, 학생처장이 유관부서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구조 등심위 등을 통해서 학생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함께 논의하기를 제안하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처에 요청하면 답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 일정을 통해 진행하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은 학교 차원에서 안건으로 진행하는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건인데 전달도 학생의 역할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학교가 먼저 접근성 높게 알려줬다는 답변을 기대했음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일정 조정 시 학생위원회에 대한 후순위 접근은 학생위원회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먼저 수합하거나 함께 수합할 수 없는지 문제제기하다.

- 예산팀장이 2월말 회계 마감 이후 4월 초 내·외부 감사 수감까지 이어지는 결산작업과 학사일정상 중간고사 기간이 맞물려 결산안 관련 등심위 일정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다. 올해 등심위는 예년에 비해 빠르게 일정 문의를 진행하였음에도 13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 가능한 일정을 취합하기 어려웠음에 양해를 구하며, 향후 학생위원 요구를 수용하여 모든 위원에게 2개월 전에 동시 문의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답하다.

1.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2개의 안건을 안내하고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전체 보고 이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다.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 목동병원 및 서울병원 재무팀장이 배석하고 위원장이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전년도 결산 대비 증감요인을 덧붙여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을 요청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의료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인건비 증가 사유를 설명하며 의료 비용 증가에 대해 답변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양 병원의 진료 수가 차이에 대해 부연하고, 회계연도 내 처리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이 4분기 비용 대비 수익 감소에 대한 향후 개선 가능성을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다.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기준과 계획을 추가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답하다.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서울병원 건축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고, 목동병원 재무팀장이 답변하다. 학부 총학생회장이 부속병원전입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전출 규모와 계획에 대해 답변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배석한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양 병원 재무팀장에게 이석 가능함을 안내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반대의 사유로 등심위 구조에 대한 반대의견이 포함되었으며, 여전히 과도한 의료원의 적자가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 모든 학부 학생위원들이 반대하였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와 예결산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요구안 발제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에 앞서 진행한 발언을 추가한 후 요구안에 대해 발제할 것을 희망하다. 구조적으로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등심위 진행방식과 추가 개회 요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추가로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이전 구조 등심위 1회 추가 개회를 요청하다. 추가 개회 시 학생 요구안과 등심위 구조 운영개선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7월 이후 등심위에서 예산(안) 논의 순서 변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지속적인 공문 답변 내용과 같이 학생 요구안은 등심위가 아닌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5월 실무협의회, 7월 처장 임시간담회, 9월 총장 간담회로 진행한 바 있음을 답변하다. 의견 수렴을 위한 각 행정 부서와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자리에서 학생 요구안의 많은 부분을 검토 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답하다. 현재 단과대학 학장님들과 단과대학 학생회 만남을 요청하였고 검토와 의견 요청까지 진행된 상황임을 부연하다.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실무협의회는 학생 요구안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등심위 자리라고 발언하며, 예산 관련 요구안이 있고 학생들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부연하다. 학생 복지 요구 합의안은 검토를 요청하여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법령에 따르면 회의 소집 및 절차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의 요청이면 개최가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관련 규정에는 단순히 개의 요건으로 개의 요구 정족수만 나열되어 있지 않고 안건을 고지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고,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의무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것이라면 위원장 권한이 확대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추가로 학생 요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결산안과 등록금 책정 심의·의결이라는 위원회 기능에 맞는 안건 소집이 적합함을 발언하다. 학생 요구안은 의결 가능 안건이 아니므로 더 적합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에서 학생 요구안에 대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함을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종류별로 다양한 회의가 있음에도 학생의 요구를 말할 창구가 없음을 발언하다. 중앙도서관 사물함 사용에 대한 특수대학원 학생의 항의 사례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음을 부연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개인 민원은 '이화에 바란다'라는 소통 채널이 있어 바로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단과대학의 문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단과대학 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학생처와 학생 소통 게시판이라는 소통 창구가 있음을 답변하다. 전체가 모이는 자리는 공동의 주제를 가져야 하며, 학생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최소 15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대응하기 때문에 과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 답변서를 제공하였음을 설명하다. 공식적인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과 개개인의 불편사항은 각각의 적합한 채널을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통해 진행이 필요함을 부연하다.

- 교무처장이 작년 팀장 협의체를 매 학기 진행하였고, 처장 임시협의체를 다수 진행하였음을 발언하며, 학생 요구에 대해 장기적 또는 단기적 반영 가능성을 타진하여 다수 반영한 사례를 들어 등심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은 협의체를 통해 더 활성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안건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 재질의하며, 구조 등심위가 1년에 2번 열려야 하고 작년 7월과 동일하게 진행되 그 전에 학생 요구안 심의와 운영개선안 논의를 1번 더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작년 3차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 심의를 상정하여 진행했고 타 대학도 유사 사례가 있어 기능적 한계는 해석하기 나름임을 부연하다.

- 학생처장이 작년 사례가 굉장히 예외적이었으며, 안건이 아니라 심의없이 의견만 듣는 자리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 외 안건은 위원들 동의 하에 의결 안건이 아니라 논의 안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 요구안 논의를 위한 5월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음을 발언하다. 추가로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안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가 필요함을 부연하다. 현재 학생 요구사항을 최대한 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발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 외에 향후 등심위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위원들의 동의하에 적절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등심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있으며, 등심위 안건 및 회의 소집요건 등은 교육부에서 만든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을 설명하다. 기본적으로 규칙은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정하거나 포함시킬 수 없음을 따라 등심위의 역할과 기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의 심의·의결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로 정해져 있음을 부연하다. 법이 아닌 운영을 목적으로 상세하게 정해준 것이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는 학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등심위의 안건과 기능은 법에 의해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구조 등심위는 등심위의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외의 안건을 따로 채택하는 것은 등심위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정해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언하다. 또한 이처럼 법적 범위 외로 운영하게 되면 학교 차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임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중 예산 관련 부분을 등심위에서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논의하자고 하는 게 불가하다는 것의 판단 주체를 확인하고 싶었으며, 등심위의 기능적으로 불가하다는 답에 대해 기능은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심의 및 의결 안건으로 적합하진 않지만 학생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 요구안에 관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여러 협의체 등에서 추가 논의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임을 답변하고, 학생처장이 학생 요구안에 대한 부분을 결산 심의하면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임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발언 기회 보장에 대한 것을 넘어 개선안에 대한 확답과 당장 5월은 어렵더라도 7월 전 구조 등심위의 개최를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회의 시간 이후 일정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금일 회의에서는 학생 요구안 발제를 진행하고, 구조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다. 결산(안) 심의 전 지난 등심위 과정에서 벌어진 부분에 대하여 교직원위원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학생들의 실망감이 큰 측면에 대해 추가 발언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2차 등심위 결과와 진행과정에 있어 학생위원분들의 느낀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는 2번 진행되는 것인지 문의하고, 학생처장이 구조 등심위는 진행하기로 하였고 방법과 일정은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보고 후 질의응답 진행을 안내하고 예산팀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장이 설명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인상분의 수입 변동에 대해 질의하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고, 예산팀장이 학생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진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 이후 명시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 전입금과 관련하여 증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법인전입금 증가임을 답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이화·신세계관과 조형예술관 냉난방 개선공사의 금액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이화·신세계관은 4차 공사에 해당함을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시설 개선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며 먼저 개선 대상 건물로 설정된 사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설비 구축 시기와 고장 수리 상황 등 노후화 정도에 맞춰 교체 시기를 계획하고, 자원 확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순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2026학년도 예정된 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기술적인 측면의 공급자 위주의 계획과 더불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개선 계획이나 예산을 미리 공개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입찰 또는 업체와의 교섭권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등 정보를 알 수 없고 수리 계획이 있다면 그것 말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방향의 요구를 하고 싶는데 정보 공유는 어떻게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협의체에서 현실적인 계획과 함께 필요한 측면들을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발언하고, 작년 협의체에서 정보 교환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부연하다.

- 관리처장이 같은 건물 내 냉난방이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수리 가능 여부와 비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에 순위 변경이 가능함을 부연하다. 순서 공개에 따라 시급성으로 인한 순서 변경에 대해 구성원의 불만 발생 가능성도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려면 정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보가 필요함을 발언하고, 건물의 노후화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설정하기를 희망하다.

- 관리처장이 건물별 담당자가 냉난방뿐 아니라 수도, 설비, 전기 등 전반을 예산에 맞춰 개선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획을 공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을 공개하면 진행이 안 될 경우 어려움이 있음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현황과 우선순위를 먼저 전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경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시급성과 무관한 순서 변경이나 과도한 추가 개선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답변하다. 최근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희망하는 부분이 공유되면 가능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자 함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협의체에서 늘어난 예산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부분을 먼저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라 협의체나 요구안을 이야기할 때, 학교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고민하고 만나기를 희망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과거 결산 대비 보수 증가분이 큰 부분을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지출항목 중 교직원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가 상당했음을 설명하며, 2026학년도 또한 동일한 추세로 전망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건비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직군에서 영향이 큰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학내 다양한 직군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십수년간 재정상 한계로 말미암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우리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와 인력 부족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없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교무처장이 석좌교수나 펠로우급 교원을 모시는 과정에서 임금 구조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물가상승률 대비 등록금 동결이 오래 유지된 상황임에 따라 개선된 부분을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해 사립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대학의 인건비와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대 간 차이를 부연하며,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수 교직원 유치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기금 인출 감소분에 대해 질의하며, 단위사업 기금은 인출이 증가하고 본부 기금은 감소한 측면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내 대형 연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까지만 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사업 변경 시기에 맞물려 집행이 감소하였음을 답하다. 건축 관련 부분과 동일하게 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의 변화임을 부연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재건축 관련 이설공사 비용 증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재건축 대상 건물 주변 시설물 이설공사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Ewha Frontier 10-10 사업 종료 감소분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장이 교내 대규모 연구 지원 사업 종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후 시차가 발생하였으나 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 사업이 시작하였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2025학년도 결산(안) 주요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학생 요구안 중 해당 내용이 선택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 운영을 통해 해결되었던 학생 요구안 해결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제공 자료에는 예산 집행 규모가 큰 사례를 기재한 것임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각 단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특별 예산 등 배정 요구에 대하여 예산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거나 자체적 해결 가능한 부분은 부서별 상시 예산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등심위기 때문에 학생 요구안이 주요 핵심적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공하고자 작성된 자료이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시설 투자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도움이 되기 위해 다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한 것임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요구안이 실제 다르게 집행된 건에 대해 전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발언하다.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이 작년 학생처에서 많은 협의체를 진행하여 단과대학 학생들의 요구안과 결과 등을 서로 회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단과대학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서 행정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계절학기 등록금이 포함되는 계정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등록금 수입임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부 계절학기에 대학원생 수강 제한을 하지 않고 대학원 수업 수강으로 같음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회의 대학원 학생회장의 제안을 듣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학사 관련 규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원인건비에서 퇴직금이 증가한 부분과 재채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강사 퇴직금에 대해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계관란 장학금 증가분이 인원 변동의 사유인지 확인하고, 예산팀장이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것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입시수입 증가에 따른 입시관리비 증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입시수입은 법적으로 입시관리비로 사용되어야 함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금 인출은 감소하고 기금 적립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출이 적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큰 금액 인출이 진행될 것임을 답하다. 2025학년도에는 기부금 모금 확충 노력을 통해 기부금이 늘어나고 기금운용 수익 확대 노력과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예금이자도 크게 늘어난 결과임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 기금인출을 통해 환경 개선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학장님 권한인지 확인하다. - 학생처장이 각각 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인출목적에 맞춰 집행함을 설명하다.
--	---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번 결산을 보면 기금 적립이 늘고 인출은 적은데도 등록금 인상이 정말 불가피한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발언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2027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27학년도 예산을 보고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2027학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다. 2025학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는 금융시장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3백억이 넘는 예금이자는 개별 기금에 배분되어 경상적 운영비로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음을 부연하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6학년도 예측 또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건비 증가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인상 예정인지와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장학금 증가분이 적은 측면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자료 내용은 글로벌 MBA 학생 수 증가로 해당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이며, 증감분석 시 특이사항이 명시된 측면임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따른 투자분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국제처와 호크마교양대학의 많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크다는 점을 들어 많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실운영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어 외국인 유학생 관련 투자는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 대학은 교육 국제화 역량 우수 인증 대학임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보수 인상 유지를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우수 교직원 확보를 위해 인건비 증가는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수요는 존재함을 답하다. - 총무처장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급여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움을 발언하다. 이어 기금은 모든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교비 목적 제한이 있고 법에 따라서 감가상각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기부자의 위탁 취지를 붙여 제공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다. 교비, 개별 목적, 위탁 취지 중 어느 하나를 벗어나 사용이 불가함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에게 발제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협의체에 앞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
--	---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였고 단과대학에서는 불가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등심위 및 예산 필요 요구안 정리본과 학생 복지 요구 합의(안), 2026 이화인 5+ 요구안 해설서를 전달하고 등심위 및 예산 필요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구조에 관한 요구를 함께 발제하며, 7월 구조 등심위 외에도 2026년 운영 개선안을 다루는 구조 등심위 개최를 요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중앙 요구안 예산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재정 운용 투명성, 교육 환경 개선, 학습·휴게 공간 개선, 진로·취업 지원 개선, 캠퍼스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학생 자치 및 문화 지원에 대해 요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각 단과대학과 동아리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발제하며, 해당 요구사항은 각 단과대학 대표들이 직접 정리해 제출한 내용이고 이화인의 절반이 넘는 7,661명이 지지하여 준 요구안임을 부연하며, 구조 등심위 자리에서 학생 요구안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하다.

- 위원장이 학생 요구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해의 기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협의체로 진행하면 의사소통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활용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지정한 부분이 실제 쓰일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등심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언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으로도 등록금 인상분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동일하게 가능한 상황인지와 국가장학금 보전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협의체를 통해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논의하여 소통을 통한 결과물로서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다. 국가장학금 보전을 등록금 인상분에서 제외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하다.

- 학생처장이 국가장학금 보전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당장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부연하다.

- 위원장이 우리 대학은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지니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단위 기관에서 발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등심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이므로 등심위가 단위 기관의 권한을 강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제하긴 어려우므로 학생 요구안에 예산 사용을 희망한다는 점을 단위 기관에 전달할 것임을 답하고, 협의체에서 실현가능하게 진행하고자 함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개최 자체는 위원이 함께 있을 때, 시기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며, 현실적으로 7월, 8월 기간 중 전반적 구조 관련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는 심의 및 의결하는 자리이므로 해당 내용은 별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 때 학생 요구안과 예산 관련 논의가 불가한지 질의하고, 학생처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므로 결정권자가 아님에 따라 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를 각 처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학생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나 학생 요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 먼저 의견을 주어 협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청하고 학생처장이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의 결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 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을 의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반대의 사유로 인상 반대에도 강행되었던 결산(안)이라는 점과 학생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찬성이 불가함을 부연하다.

■ 폐회

- 위원장이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주연	이준엽	장현수
-----	-----	-----	-----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4월 15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준엽		위 원	이승연	
	위 원	강보아		위 원	이주연	
	위 원	백주현		위 원	이창온	
	위 원	서하연		위 원	장현수	
	위 원	신동희		위 원	정예진	
	위 원	오민서		위 원	최정아	
	위 원	윤정원				
	작 성 자	예산팀 남 아 영				